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83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일

발 의 자: 조정식, 김선임, 김윤환, 조우현,
강상태, 서은경, 윤혜선, 고병용,
이군수, 최현백, 성해련 (이상 11명)

□ 제안이유

- 인구 940만 9,466명(2023년 8월 기준)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5개인데 비해, 인구 1,362만 4,964명(2023년 8월 기준)인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개에 불과함.
-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도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보다 넓어 시민들의 지방법원·지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경기동남권 내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의 인구는 203만 3천 명(2020년 1월 기준)에서 210만 1천 명(2023년 8월 현재)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함.

□ 주요내용

- 경기남부권의 인구증가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구현 및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수원고등법원, 성남시
- 붙임 :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1부.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헌법 27조의 가치는 구현되고 있지 않다. 인구 940만 9,466명(2023년 8월 기준)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총 5개다. 반면, 인구 1,362만 4,964명(2023년 8월 기준)인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보다 넓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남부권 시민들의 지방법원·지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익을 누리는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되었다.

경기동남권의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의 인구는 203만 3천 명(2020년 1월 기준)에서 210만 1천 명(2023년 8월 현재)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헌법 27조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성남시의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구현 및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대법원·정부는 「성남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하나, 사법부는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하나,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23. . .

성 남 시 의 회